

1년만에... KIA 마운드 뒤바뀐 명암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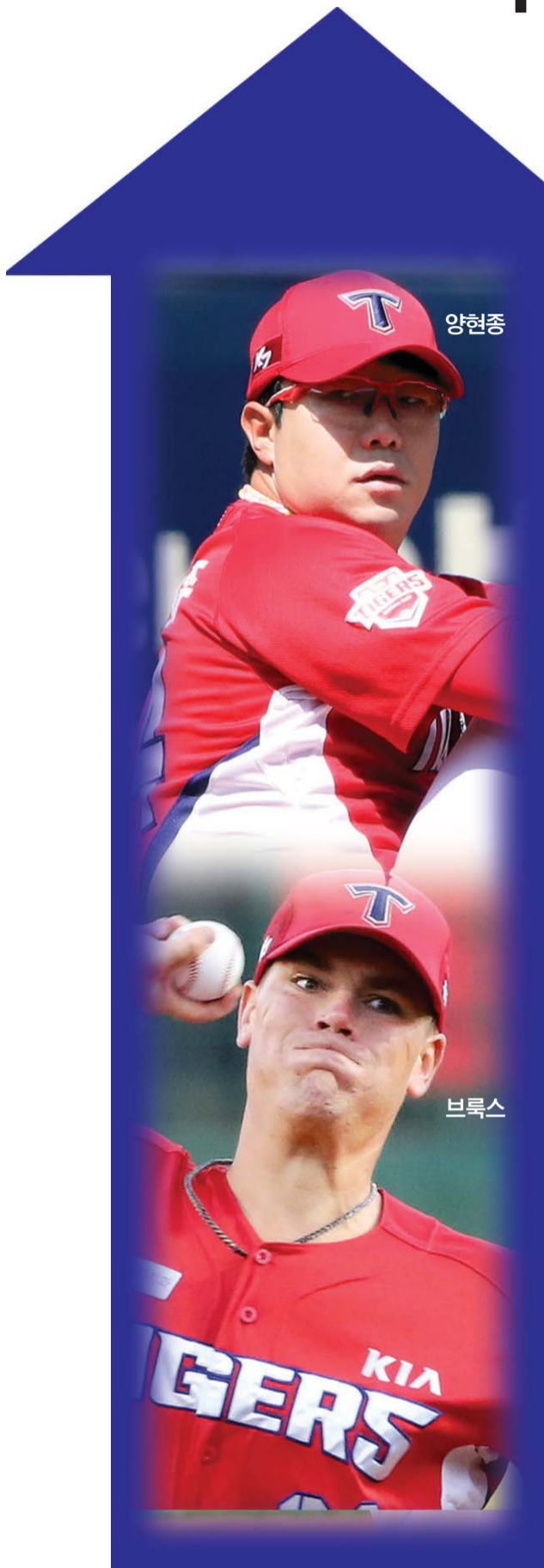
양현종·브룩스·가봉·이민우·임기영
5선발 로테이션 완성... 전력 안정적
양현종·브룩스 위력적 원투펀치
홍상삼·김현수 등 플랜B도 가동

불펜

좌완 임기준, 부상으로 캠프서 제외
하준영,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
마무리 문경찬, 장타에 흔들
좌완 기근... 고질적 뒷문 불안 재현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 명암이 바뀌었다. 탄탄해진 선발진과 달리 빈틈 많은 불펜이 고민거리다. 지난 시즌 KIA에는 팬들을 웃게 한 '박하전문'이 있었다. 박준표, 하준영, 전상현, 문경찬의 성을 따 지은 애칭으로 KIA의 막강 필승조를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박하전문'에 위력적인 투심을 장착한 고영창까지 승리를 잇는데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KIA의 불펜은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전력이었다. 반대로 KIA 선발은 예측불허의 자리였다. 양현종이 초반 부진을 딛고 평균자책점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두 외국인 선수 제이콥 터너와 조 윌랜드가 기복 많은 시즌을 보내며 15승을 합작하는데 그쳤다. 4·5선발을 위한 '선발 오디션'도 시즌 내내 계속됐다. 김기훈, 차명진, 임기영, 홍건희, 이민우, 황인준, 양승철, 강이준, 이준영이 선발로 등판하는 등 확실한 선발 로테이션 없이 시즌이 시작되고 끝났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진의 무게 추가 달라졌다. '도깨비 타선'에도 KIA의 전망을 밝히는 것은 안정된 선발진이다.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세 외국인 듀오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봉이 무계감을 더했다. 특히 부상 없이 완벽하게 캠프를 소화한 브룩스는 실전에서도 위력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키움을 상대로 한 KBO리그 데뷔전서 5.2이닝 5피안타 6탈삼진 1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한 브룩스는 12일 한화와의 두 번째 등판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냈다. 7이닝을 소화한 브룩스는 7피안타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12.2이닝 동안 사사구를 하나도 내주지 않은 브룩스는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매서운 변화구, 그리고 빠른 템포로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첫 등판 성적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이민우와 임기영도 선발 경쟁의 승자가 돼 선발진에 안정감을 더해줬다.

서재용 코치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7명의 후보군을 상대로 선발 오디션을 진행했다. 힘과 스피드를 더한 이민우와 임기영은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 로테이션을 완성했다. 앞으로도 선발 경쟁은 계속되지만 '임시 선발'이 주목 구구식으로 투입되던 지난 시즌과는 결이 다르다. 앞서 경쟁을 해왔던 홍상삼, 김현수가 퓨처스리그에서 선발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고졸 투기 정해영도 선발로 경험을 쌓고 있다. 선발진 플랜B가 가동되면서 올 시즌 선발진은 계획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제는 부상과 부진이 겹친 불펜이다. 좌완 임기준이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고, 스프링캠프에서부터 팔꿈치 부상으로 고전했던 하준영은 13일 왼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하준영은 부상 복귀 후 자체 흥행전과 KBO 연습경기 등을 소화했지만 통증이 재발하면서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뺨조각과 손상된 인대를 제거한 하준영은 5일간 입원 후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재활 훈련에 돌입하지만 사실상 올 시즌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다. KIA에는 특히 귀한 좌완들이 연달아 부상으로 이탈했고, 현재 불펜진도 지난 시즌의 견고함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 문경찬이 12일 시즌 세 번째 등판 만에 첫 세이브를 신고했지만, 2사 이후 볼넷과 안타 등을 내주며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다. 앞선 연습경기에서 장타 고민도 남겼다. 지난 시즌 필승조로 역할을 해준 고영창도 앞선 세 번의 등판에서 1.36의 이닝당 출루허용률을 보이는 등 출발이 좋지 못했다. 전상현과 박준표의 부담이 커진 시즌 초반, 좌완 김명찬이 퓨처스리그에서 실전을 소화하면서 풀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불펜의 성적에 따라 '윌리엄스호'의 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MLB 개막해도 홈 등판은 내년에

캐나다-미국간 국경 봉쇄...美 플로리다주 더니든 홈 구장 사용 유력

미국프로야구에서 뛰는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은 이적 첫째 새 홈구장인 로저스센터 마운드에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경기가 열릴 가능성이 적어서다. 이는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토론토 팀이 속한 미국프로농구(NBA),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토론토 선이 13일 전했다. 메이저리그 30개 팀 가운데 블루제이스는 유일하게 캐나다에 연고를 뒀다. 토론토에서 프로 스포츠 경기를 무관중으로라도 개최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조만간 해제될 것 같지도 않다. 게다가 국외에서 온 입국자들의 14일 격리 조치도 유효하다. 토론토에 1경기 또는 3연전을 치르려고 미국 연고팀이 14일 격리를 감수하며 국경을 넘을 순 없다. 이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리상 가까운 팀끼리 리그를 새로 편성해 팀당 82경기씩 치르는 7월 개막안을 마련하고 선수노조와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 안방인 토론토에서 경기를 못 치른다는 건 블루제이스에 분명 악재다. 마크 셔피로 토론토 사장은 토론토 선과의 인터뷰에서 "MLB 사무국이 중립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스프링캠프인)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을 정규리그에서 홈으로 사용할 공산이 짙다"고 예상했다. 류현진은 3월 초 스프링캠프 중단 이후 캐나다의 입국 제한 조치를 현재 더니든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메이저리그가 개막에 시동을 건다면, 류현진은 6월 중순께 이곳에서 동료와 재회하고 7월 초 리그 개막을 맞이한다. /연합뉴스



이러 기존 동부지구 아메리칸리그 5개 팀과 내셔널리그 5개 팀을 합친 10개 팀의 '동부리그'에서 경쟁한다. /연합뉴스

테세이라 "MLB 개막하려면 연봉 삭감 받아들여야"

사무국 제안에 "개막, 선수 손에 달렸다" 협조 촉구
보라스 "한발도 양보 못 해...연봉 재협상 없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 개막 준비 과정에서 선수 연봉 삭감 문제가 화두가 되는 가운데, 스타플레이어였던 마크 테세이라(40)가 선수들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거물 에이전트 스킷 보라스는 더는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테세이라는 13일 ESPN과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야구가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메이저리그 개막은 전적으로 선수들의 손에 달려있다. 선수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가 양보하지 않으면 올 시즌은 그대로 날아간다.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며 "50%의 수입 분할은 그렇게 나쁜 조건

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선수 이익을 대변하는 보라스는 언론을 통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에서 "이미 선수들은 충분히 양보했다. 다시 연봉 협상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구단이 원하는 연봉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7월 정규시즌 개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늦게 시작하는 만큼, 경기수를 기존 162경기에서 82경기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개막까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선수 연봉

문제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각 구단은 2020시즌 개막을 위해선 선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메이저리그 구단과 선수노조는 한 차례 연봉 조정에 합의했다. 선수들은 선금금 1억7000만 달러를 나눠 받고 이후 메이저리그가 시작하면 경기수에 비례해 자신의 연봉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구단주들은 7월 개막안을 통과시키면서 추가 요구안을 내놨다. 구단 수입의 50%를 선수들에게 주는 방식을 선수노조에 다시 제안했다. 선수노조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미국 야우스포츠는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는 건 선수 본인이고 가족의 건강을 걸고 뛰는 것"이라며 "선수노조는 사실상 추가 연봉삭감인 수익 배분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佛리그 조기 종료 일부 구단 반발

코로나 영향 10게임 못 치러...강제 강등 아미앵 소송 제기

프랑스 프로축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개하지 못한 채 시즌을 도중에 마치면서 1부리그(리그앙)에서 2부로 강등이 결정된 아미앵 구단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미앵은 12일(현지시간) 베르나르 조아냥 회장과 크리스토프 베르트랑 변호사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그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중단됐고,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하원 연설에서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9월까지 금지하고 프로축구 시즌 재개도 불허한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30일 종료

가 선언됐다.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 중엔 처음으로 코로나19 탓에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한 채 시즌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두를 달리던 파리 생제르맹(PSG)의 우승이 확정됐고, 20개 팀 중 19위인 아미앵과 20위 툴루즈는 강등됐다. 그러나 중단되기 전 전체 38라운드 중 28라운드까지만 치른 가운데 아미앵(승점 23)과 18위 님(승점 27)의 격차는 승점 4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다음 시즌엔 한시적으로 강등 없이 2

부에서 승격한 2개 팀을 포함해 리그양 참가 팀을 20개에서 22개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아미앵 측 주장이다. 베르트랑 변호사는 "시즌을 중단한 결정이 아닌 그 결과에 이익을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아냥 회장은 "어떻게 대회 4분의 1을 치르지 않았는데 두 팀을 강등시킬 수가 있나. 38라운드 중 28경기로는 그 팀의 진정한 기량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2년 전 릴의 예시를 봐도 28라운드까지 19위이다가 17위로 시즌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스포츠의 공정성에 어긋난다. 우리는 불공정한 결정을 뒤집기 위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